

<줄거리>

부산 출신 3명의 여성.

일찌감치 서울에 취직해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는 지안, 세아

그에 반해 친구들보다 3년이나 늦게 취업한 가령.

각자 저마다 인생의 풍파가 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가령이 일하는 곳은 ‘위케이션 거점센터’

타지역 직장인들이 부산에 와서 일도 하고, 휴가도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지안과 세아가 참여를 한다.

먹고 사느라 바빠 특만 했던 세 사람이 몇 년 만에 셋만의 시간을 내는데

부산 출신으로 부산에 터를 잡은 가령

부산 출신이나 서울에 터를 잡은 지안, 세아

세 여자의 부산 위케이션 일주일은 어떤 모습일까?

# 구성순서		
No	스토리라인	비고
1부		
1	거점센터에서 일하는 가령. 오픈 준비를 하고, 거점센터가 어떤 곳인지, 취업할 곳 없는 부산에서 직장을 얻어 운 좋다는 얘기를 하며 영상 시작	# 거점센터 오픈 준비 # 테라스에서 커피 보며 가령 독백
2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는 중에 단짝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리는데. 지안, 세아가 부산 워크케이션에 참여하겠다는 소식 가령은 귀찮은 듯 하지만 나름 재밌겠다는 생각에 친구들 초대 아닌 초대	# 일상 보내는 가령 # 단톡방 메시지 '야 그렇게 좋은 걸 왜 말 안했나?' # 인상 살짝 찌푸리는 듯 하지만 슬며시 웃는 가령
3	부산역에 친구들 마중 나가는 가령. 이때 지안, 세아 소개 CG 두 친구는 워크케이션 센터에 와서 첫째 날 워크케이션 참여 시 해야 하는 일들을 한다. 이 와중에 계속해서 장난치는 세 친구	# 부산역에서 나오는 지안 세아 마중나간 가령 # 지안, 세아 원샷 스틸 - 소개 자막 or CG # 워크케이션 센터로 들어가는 세 사람. # 출근 등록, 웰컴키트 등 전반적인 이용 방법 안내해주는 가령 # '아 네~ 감사해요^^'라며 모르는 사람인척 연기하는 등 계속해서 장난치는 세친구
4	세친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업무를 본다. 그 와중에도 어깨를 치고 가거나 과자를 슬며시 주거나 몰래 사진 찍어 단톡방에 올리는 등 소소한 장난 치느라 재밌어하는 세친구 오늘 마치고 뭐 할거냐는 등의 계획 얘기 나누다가 영도 요트 체험하러 가기로 한 세사람	# 센터 안에서 일하는 세사람 # 가령 일하는 거 사진 찍어 단톡방에 올리는 지안 # 'ㅋㅋㅋ'하며 재밌어하는 세 사람 # 단톡방 대화
5	6시 땡 하자마자 퇴근. 영도 요트 체험 하는 곳으로 향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지안은 사장님을 아는 척한다. 알 고보니 고등학교 선배. 인물 좋고 흰칠하고 집도 따뜻하다 며 세아, 가령에게 '잘 한번 꼬셔봐~'라며 눈짓주는 지안. 그렇게 요트 체험하는 세 사람	# 영도 요트 체험장 # 지안과 사장님 인사 # 뒤에서 세아 가령에게 사장님 얘기하는 지안 # 요트 체험

6	<p>요트 체험 하는 중에 사장에게 ‘오빠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3대3 쪼인 함할래? 멤버 구해바바’라는 지안          그렇게 사장 친구들과 함께 3대3 자리가 마련되고          체험장 근처 or 체험장 사무실에서 술파티          사장이 가령에게 추파 날리고 가령도 그런 사장이 싫지 않은 눈치. 화장실 간다며 세 친구 나왔다가          가령 화장 고쳐주며 호들갑 떠는 지안, 세아</p>	<p># 요트 체험 중에 사장 지안 대화          # 사장 친구1, 2등장          3대3 술파티          # 사장과 가령 묘한 기류          # 화장실에서 세친구 대화</p>
7	<p>술파티 대화는 ‘서울 생활 어떤지’, ‘직장 상사 뒷담’          ‘8090 서울 사투리 흉내’ 등 재미난 얘기          그때 가령이 눈물을 보이며 사장과 자리를 뜬다          지안, 세아 놀라서 쳐다보다가 이내 씨익 웃는데          플래시컷되며 가령과 사장 사이에 있었던 일.          둘만의 대화를 하는 가령과 사장, 일힘든 거 없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인데 힘들 거          같다~ 는 사장의 말에 울먹이며 사실 좀 힘들다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다~며 감정잡는 가령.          다시 현재 시점, 술먹고 노는 지안, 세아에게 가령 특          ‘야 눈치껏 해리 알제?’라는 카톡. 그런 카톡 보며          저쪽 신경쓰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며 짠하는 지안,세아</p>	<p># 술파티          # 서울 사투리, 서울 취직          등에 대한 얘기          # 눈물그렇거리는 가령          팔 잡고 잠깐만 바람쐬고 오겠다는          사장. 그렇게 나가는 두 사람.          #플래시백          #대화나누는 사장 가령          #현재시점. 지안,세아에게          가령 카톡          # 남은 네 사람 재밌게 놀기</p>
8	<p>야경 등의 화면으로 브릿지 준 후 자리 파하는          지안, 세아. 남자들 먼저 택시태워 보내고          지안, 세아도 ‘자~ 오늘은 각저 알아서 가자~’라며          집에 가는 두 사람. 화면 전환되면 나오는 가령 집 문 앞.          알콩달콩하는 두 사람. 야경에 늑대 ‘아우’ 소리 들리며          문 광 달히는 소리. 1부 끝</p>	<p>#자리 정리하는 지안 세아          #택시타고 가는 두 남자          #걸어서 택시 잡으러 가는          지안, 세아          #화면 전환 가령 집 앞          #알콩달콩 두 사람          #야경에 늑대 ‘아우’, 문 ‘광’</p>
2부		
9	<p>뜨는 해 인서트. 출근하는 세아, 지안          카운터에 가령이 앉아서 웃는 얼굴로 카톡을 하고 있다.          막 설레하며 눈빛 주고 받는 세 사람          단톡에서 탕비실로 모이자 얘기한 후 모여 어제 썰 풀어          보라고 호들갑 떠는 지안, 세아          아무일도 없었고 사장 오빠랑 썸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가령. 그런 가령을 보고 호들갑 떠는          지안, 세아. 그리고 오늘은 마치고 뭐하지 대화나누다          예전에 갔던 거기 가자며 맛집 투어 뉘앙스 풍기기</p>	<p>#일출 인서트          #센터 들어오는 지안 세아          #카운터에 앉아서 히죽거리며 휴대폰          보는 가령          #호들갑 떠는 지안, 세아와          입 삐죽거리며 좋아 죽는 가령          #단톡방 ‘탕비실로’          #탕비실에서 세친구 대화</p>

10	<p>센터에서 업무보는 세 사람 중간 중간 카톡으로 ‘야 이가령 니 남친 생겼다가 커피 사내라’ 등 가령 놀리는 지안, 세아. 가령 독백 들린 후 6시 땡 하자마자 짐싸서 나가는 세 친구</p>	<p>#센터에서 일하는 세사람 #단톡방 #시계 보고 있는 세 사람 #6시 땡 시계 #후다닥 나가는 세 사람</p>
11	<p>남포동에 놀러간 세친구. 파르페, 떡볶이 먹는 세사람 ‘모처럼 학창시절 느낌’이라는 독백하는 가령. 강통시장 앞 김치찌개 먹으며 추억회상하는 세사람 플래시백 세사람이 친구가 된 과거 이야기 교복 입고 말뚝박기 하는 세아, 가령.외 친구들. 그런데 5명밖에 없어서 뭐가 잘 안 됨. 그때 등장하는 지안. 같이 말뚝박기 하다가 친구됨</p>	<p>#남포동 들어가는 세친구 (대영시네마 쪽) #크레페 사먹기, 대영시네마 앞에서 떡볶이 먹기 #강통시장 앞 김치찌개집 착석 #대화 나누는 세 사람 #화면 전환-과거 #젠~디로 팀 짜는데 2:3 #말뚝박기 하는 가령, 세아와 친구들 #아 팀안맞으니까 재미없다 #그때 운동장 지나가는 지안 #지안 잡아오는 세아 #말뚝박기 슬로우 - 가령 독백</p>
12	<p>마지막은 자갈치에서 회 떠서 호캉스하러 숙소로 가는 세 사람. 얼큰하게 취한 지안과 무덤덤 취기만 살짝 오른 세아. 가령은 사장과 카톡하는데 카톡 내용보면 일부러 취한척 오타 양껏 가령이 자꾸 폰 보니까 뭐라하는 지안. 그냥 던지는 말로 요즘 일 안 힘드냐는 말했더니 눈물 똑똑 흘리며 신세한탄하는 지안. 가령은 공감하며 폰 슬쩍 내리고 지안 얘기에 집중 세아는 감흥 없이 남들 다 똑같이 산다며 위로 아닌 팩트만 전달. T말C 그 자체 지안은 계속해서 신세한탄, 가령이는 공감하다가 폰 슬쩍 슬쩍보며 몰래 웃고, 전화 받으러 자리 왔다 갔다하고, 세아는 그냥 맥주 훌쩍이며 지안, 가령 하는 짓거리 봄.</p>	<p>#자갈치에서 회뜨는 세아 #가령, 지안은 옆 편의점에서 술 사기 #세사람 만나서 숙소로 #호텔 털다운 #호텔 들어가는 세사람 #술자리 중에 지안 만취 #톡하는 가령 #가령 톡 화면 인서트 #대화 나누다 폭풍 오열하는 지안 #공감하는 가령, 공감 못하는 세아</p>

<p>13</p>	<p>술자리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세아도 살짝 취했는지 본인 얘기를 하는데, 지안 세아가 신세한탄.      평소에 지안, 세아가 멋있게만 보였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느껴진다. 항상 내가 가장 뒤처지는 듯 했는데 오늘은 내가 그나마 행복한 사람 인 거 같다는 독백하는 가령.      그때 울리는 가령 폰. ‘조동제 오빠’ 뜨는 화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자 목소리 잔뜩 화가 난 채로 ‘니 누구냐며 내 조동제 와이폰데 니 먼데’라고 하고      그 너머로 들리는 동제 목소리 ‘아 그냥 보험 하는 후배라 니까’라며 툭 끊기는 전화      어찌나 목소리가 컸던지 지안 세아도 같이 듣게 되고 순간 술자리에 정적.      끼리끼리 사이언스. 불행도 옳는 건가 등의 독백한 후 술 퍼마시는 가령. 동제 욱 실컷하는 지안 세아.      가령 울기 일보직전 상태.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 눈물 바람.      야씨 배민이나 시켜라 라며 술자리 이어지는 뉘앙스      술자리 화면 팬, 디졸브 일출 인서트</p>	<p>#술자리      #지안, 세아 신세한탄      #그런 두 사람 보며      가령 독백      #울리는 가령 폰      #폰에 뜨는 ‘조동제 오빠’      #와이프 전화 받고      뺑진 세 사람      #더 걸쭉해진 술자리      #휴대폰 꺼내 배민 주문하는 세아      #술자리 팬 디졸브 일출 인서트</p>
<p>14</p>	<p>평소처럼 센터 오픈 준비하는 가령      문 열고 캐리어 들고 들어오는 지안, 세아      평범하게 일하는 세사람      가령이 시각을 확인하는데, 시곗바늘 2시 향하고      짐 싸들고 나오는 지안, 세아      평소처럼 화기애애, 밝게 웃으며 부산역으로 향하는 세사람. 부산역 들어가는 지안, 세아      배웅해주고 뒤돌아 걷는 가령      털업-화창한 하늘 - 끝</p>	<p>#오픈 준비하는 가령      #문 열리자 캐리어 갖고 온 세아 지안 등장      #일하는 세사람      #시계보는 가령      #시계 2시 땡      #짐싸들고 나오는 지안,세아      #다음에 서울에서 뭉치자는 등의 담소나누며 부산역이동      #캐리어 우당탕탕하자      까르르 웃는 등 어제 일      생각 안난다는 느낌      #부산역 들어가는 지안세아      #지안세아 들어가는 거 보고      뒤돌아서 걷는 가령      #걸어가는 가령 뒷모습에서 하늘로 털업</p>

## S# 5. 영도 요트 체험 (오후)

요트 체험 장소에 도착한 세 사람.  
미니 삼각대까지 챙겨온 세아

세아 (카메라 설치한 삼각대 가령에게 툭 전해주며) 야 찍어바바  
가령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야야 아니 저 기둥있어서 안댐  
고치면 된다. 좀만 옆에 가서 서라 배경 없는데 서라 오키 퍽들고~  
연사로 찍는다  
지안 (옆에서 판곳 보며 멍하니 서있기)

사진 오천만장 찍은 후 요트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세 사람  
책상 밑에서 쭈욱 올라오는 요트 사장 조동제  
그런데 사장과 지안이 아는 척을 하는데

지안 어! 오빠야!  
동제 어! 박지안 아이가!  
지안 오빠야!!! 여기서 뭐하는데!!!  
동제 뭐하기는 돈벌지, 오 친구분들?  
지안 어어!! 오빠야 안다이가 오깁오깁!  
동제 아 오리지날깁녀....ㄴ 아 안녕하세요! 지안이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연예인 보는 거 같노 반갑노~ ㅋㅋ 박지안 어케 지냈는데~  
지안 아몰라 나중에 얘기하고 요트 태아도  
(가령 팔 당기며) 애 워케이션 센터에서 일하는데 머 연계됐다메  
동제 아~! 거점센터에서 신청한 사람이 이 세사람이었구나!  
오늘 예약 세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오~래 오래 태아 드릴게요! 오세요~  
요트 탑승 후 체험하는 세 사람  
인증샷 엄청나게 찍고 고치기 바쁜 세 사람  
파워블로거 세아는 요트 구석구석 찍으러 가고  
가령은 혼자 앉아서 풍경 구경한다. 지안은 동제와 대화를 나누는데  
  
지안 오빠야 애들 예쁘제  
동제 아 머 니친구들 예쁜 거는 다 알지  
지안 이 좋은 기회 강 날릴끼가  
동제 머라카노 ㅋㅋ 왜 또 머

지안 삼대삼 콜? 친구 불러바바 오빠야 친구들 잘생긴 사람 많자나~  
동제 아~ 버릇 못 고쳤네 ㅋㅋ 기다리 바바  
(폰들고 연락처 찾은 후 전화하러 가는 동제)

요트 뒤편으로 통화하러 가는 동제.  
지안은 부리나케 가령에게 달려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지안 야야야 삼대삼 콜?  
가령 아 무슨 삼대삼이야  
세아 (부리나케 달려오며) 콜콜콜 야 얼마만에 쯤인이고 콜콜콜 무조건 콜  
가령 아 오랜만에 셋이 놀면 되지 머 또 쯤인인데~  
야 월요일이다 월요일 무슨...  
지안 (가령 말 자르며) 야! 언제부터 니가 요일 보고 놀았다고 학마!  
가령 아.. 안내키는데... (부스럭부스럭 가방 뒤져서 팩트 꺼내 바르는)  
머리 떡졌단 말이야

계속되는 요트투어. 요트 투어가 끝나고 선착장에 들어오는 배  
이때 처음 보는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흰칠해 보이는 한 사람과 누가 봐도 개그캐 한 사람.  
선착장에 들어올 때 뺏머리에 서서 두 남자 스캔하는 세친구

지안 (어금니 짹 깨물며 복화술) 야야 왼쪽 내꺼  
세아 (어금니 짹 깨물며 복화술) 머라카노 오른쪽 니남친  
가령 (어금니 짹 깨물며 복화술) 왜 오른쪽 귀여운데 내 하겠음  
동제 오 왔나~

선착장에 배 정박. 내숭 부리며 인사하는 세친구  
그런 세친구를 매너 있게 받아주는 흰칠남, 뒤에서 밝게 반기는 개그남

## S# 6. 영도 요트 체험 사무실 (저녁)

어두워진 하늘. 양손 가득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세 남자  
요트 체험 사무실에 3대3 술판이 벌어진다

흰칠남 아 지안씨 얘기 동제한테 많이 들었어요. 고딩때 예쁜걸로 유명했다던데  
지안 아 무스으으으~!  
개그남 그래서 고딩 때 그렇~게 소개 해달라고 했는데 동제가 안해주더라고

지안 어우 다해애애앵~!

동제 야 그 다 옛날 일이다 야 바라 일에 찌들어가지고 얼굴 팍 갔다

지안 야 니가 금수저니까 모르니 먹고 살라고 아등바등해바라 이래 된다!

동제 야씨 내가 무슨 금수저고!

개그남 동제 금수저 맞지! 부산에 요트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노  
안그래요? 임마 이거는 다 가졌다니까~

세아 다들 여자친구는 없어요?

훤칠남 저는 없어요

개그남 저도 없어요

동제 여자친구는 없지

가령 다들 멋지신데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개그남 (동제 흘깃보며) 여자친구 없을 만 하니께~~ ㅋㅋㅋ

동제 (당황하며) 뭐 임마 조용히해라 먼 소리 할라고 또  
(바로 화제전환) 지안이는 서울에서 일하고 두분은 부산에서 일하세요?

세아 아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가령 가리키며) 애는 부산에서 일해요  
아까 위케이션 센터 거기

동제 아아아~! 가까워서 좋네~

지안 뭐가 좋은데 가령이 직장 가까운게 니한테 왜 좋은데~?

가령 야씨 몰아가지 마라 ㅋㅋ

개그남 아 뭔데 벌써 배에서 분위기 형성된 기가?

동제 아니! 이렇게 알게된 거도 인연인데 가까우면 한번씩 밥도 먹고  
이래하면 좋다 이기지 박지안 이거이거 욱수 몰아가네!

지안 (장난끼 가득한 얼굴로) 아 그래~?

훤칠남 세아 씨는 서울에서 무슨일하세요?

세아 (살짝 숨기는 듯) 그냥 뭐 방송해요

가령 애 사람극장 아시죠? 그거 피디예요 피디! 멋있죠?

세아 아 멋있기는 무슨 똥다

동제 와~ 진짜 멋있네 방송국 피디!

세아 아 방송국 피....

세아가 뭔갈 말하려 하지만 그럴 틈도 없이  
남자 셋 세아에게 멋있다며 엄지척, 탄성  
가령은 살짝 기죽는다는 듯 쓴웃음

동제 박지안 니는 금 먼일하노 아직도 옷 그거 하나?  
지안 영 패션MD취~ 멋있지 않나 내한테 욱수 잘어울리제  
동제 그래 니 옷도 잘입고 하니까 딱 맞네



개그남 와 MD면 공부도 우수 잘했겠네요. 무슨 과 나왔어요?

지안 네? 아 전공은 그쪽 아니고 그쪽 분야에서 일하다가  
캐스팅 됐어요 캐스팅~

개스남 캐스팅? 와 진짜 멋지네. 돈도 잘 벌겠네요 패션 업계는  
좀만 잘하면 돈 우수 많이 번다던데 막 명품 이런거도 해요?

지안 (더 말하기 싫다는 듯) 아아아 뭐 그런거 비스무리한 거 해요~  
(급하게 환제전환) 근데 그거 아나 이 일하면서  
다른지역 진짜 많이 다니거든 지역마다 사람들 특징이 있다

흰칠남 어떤...?

지안 충청도 사람들은 진짜 말을 안한다. 속마음을 얘기 안하드라니까  
동제 서울사람들처럼?

지안 아니아니 서울 각쟁이 머 이런 느낌이야 아니고  
뭔가 뚜렷하게 ‘내 이거 할래! 이래 하자!’ 이런 말을 안하드라니까?  
내 청주에 있는 나디다스에 이주일 정도? 디피하러 갔었거든  
막 일하면 덥잖아 그래서 날 좀 추운데도 에어컨을 겁나 빵빵하게 틀었어  
근데 추우면 말을 하면 되잖아, 한 3일째부터 사람이 콜록 거리더라  
4일째 부터는 사람이 마 시퍼래져가지고 달달달 거리는 거라  
아니 몸이 안 좋으세요? 에어컨이라도 끌까요? 아니까  
아니여유~ 이라면서 괜찮대. 근데 결국 어찌됐는지 아나 (살짝 마 뜨고)  
그 사람 코로나였음ㅋㅋㅋㅋ 열 펄펄 끓고 그래 아픈데도  
에어컨 끄자 말 못해가꼬 참은 거였음

가령 야 진짜 사람 착하네

지안 어어 충청도 사람들은 진짜 양반이라니까?

흰칠남 그럼 서울 사람은 어떤데요?

지안 음... 아 뭐래해야되노, 각쟁이스러움과 일본스러움을 합친 느낌?  
아 세아야 니가 설명해바바

세아 일단 진짜 치열하거든. 막 혈기왕성하고 꿈 많은 20대들이  
도전하고 머 이라기에는 서울이 최고야. 진짜 열심히 살아 다들  
그런데, 그 열심히라는 선이 딱 정해져있다. 요새 막 MZ 이란다가  
딱 내 똥만큼만 하고, 대신 내 똥은 겁나 열심히 해  
근데 그 이상은 안 해. 내가 내똥그릇 챙길 테니까  
니는 니 똥그릇 챙기라 서로 한순가락도 더먹거나 덜먹지 말자  
이런 느낌? 진짜 피해는 안주거든? 대신 피해 입는 것도 엄청 싫어해  
개그남 와~ 서울말 쓴디. 싫.어.해. 우리는 싫어한다~ 이란다가

가령이 맥주 한 캔을 다 먹고 새로운 맥주를 찾으니

시선도 안 주고 새 맥주 입 부분 닦고 따서 가령에게 건내 주는 동제

가령 살짝 심쿵. 캔 건내주고 별일 없다는 듯 계속해서 얘기하는 동제

동제 이야 서울사람 다 됐네  
세아 아 한 5년 사니까 서울말이 더 편해가... ㅋ

가령이 맥주를 한 모금 하자  
사람들 얘기 들으며 가령 앞으로 물 한 컵 따라 주는 동제

지안 (그런 동제 흘깃 보며 대화 이어 나가기)  
근데 그거 아나 여기서 서울말 쓰는 사람 아무도 없디  
주세아 저거 서울말 아이다 이 촌놈들아  
개그남 서울말 아니라고!? 아니 안 그래도 그런 말 있더라고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 사투리를 안 쓴대, 그런데 경상도 사람을 서울에 가면  
사투리를 안 쓴다고 주장을 한대 ㅋㅋㅋㅋ  
세아 아 맞다맞다 ㅋㅋㅋ 촬영 현장 나가면 바로 대번에 듣는 말이  
‘피디님 부산사람이시죠?’ 이거예요 티가 나나바  
지안 야 니 그거 자꾸시키지 않나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세아 어어어 맞음!  
가령 그면 서울은 어떻게하는데  
지안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단다  
니 ‘블루베리스무디’ 해봐  
가령 블루베리스무디  
동제 (조용히 읊조리기) 귀엽노  
지안 바바바 서울에들은 ‘블루베리스무디’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게 좀 먹힘 ㅋㅋ 서울남자들 사투리 엄청 귀여워 한디  
내는 다정다감하고 쎈틀한 서울 남자랑 결혼할 거다  
동제 (동제 자켓 벗어서 가령 다리 위로 얹어주며 얘기하기)  
야 왜 사투리로 욱도 함 해주지 다 도망 갈킨데

동제의 도발에 다들 살짝 놀라며 동제와 가령에게 잠깐 이목이 집중된다.  
말은 안 했지만 동제♡가령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가령도 동제가 나쁘지 않은 듯 여자들 특유의 ‘보호본능 자극’  
컨셉을 펼친다.

흰칠남 아 근데 집 떠나서 서울에서 그렇게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지안 힘들죠. 엄마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싶고

서면도 가고싶고 바다도 보고싶고~ 빌리진 가서 남자도 만나고 싶고~  
아니 뭐 그렇게 다들 앞만보고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안 봐 정이 없어 정이~ 그런건 부산이 좋아

세아 근데 부산에는 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그남 서울이 월급도 더 준다메? 돈 잘벌겠네요 둘다

지안 그럼 뭐하노~ 물가가 높는데~ 월세도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남는 거로 생각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아요 근데 취직하기가 힘들어  
기업이 없어 기업이

흰칠남 (갑자기 화면 쳐다보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하면  
취업자리 많이 생기지 않을까?

지안 (극혐하며) 아 뭐래... 어디 광고찍어요?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서울살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여요~~

한창 푸념하며 술 먹고 대화 나누는 네 사람  
그런데 갑자기 가령 팔 잡고 일어서는 동제

동제 아 가령씨가 좀 취해서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세아 야! 뭔데 가령이 우나!?

가령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한데 놀라서 자리에 일어나 따라 나가려는  
세아에게 눈빛 보내는 가령 ‘꼬시는 중이야’ 느낌의 눈짓  
눈빛 받고 바로 ‘ok’ 신호보내며 자리에 앉는 세아  
플래시컷 / 동제와 가령의 대화

동제 가령 씨는 일하는 거 안힘들어요?

가령 아... 힘들죠 하하하 그래도 뭐 할만해요

동제 지안이나 세아 씨처럼 막 당차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 같은데  
속으로 많이 삼키는 스타일이죠?

가령 (울컥했다는 듯 목 막힌 소리) 아 뭐.. 다 그렇죠 뭐....

동제 (놀라며) 왜왜 왜 울어, 마음이 많이 안 좋구나?

가령 (손사레치며) 아 무스으은.. 아 오빠 자꾸 오구오구 해주니까  
울컥 하잖아요오..

동제 (불 살짝 만지며) 아이고 안쓰러워라 바람 쐬고 올까? 잠깐 나갈까?

다시 현시점. 문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  
그런 두 사람 뒤에 대고 말하는 지안

지안 ( ‘알만하네’ 라는 표정으로) 바람 마~이 췌고 오이소~